

에 속해서 등한시된 반면 社會・倫理의 문제, 그리고 추상적인 철학의 문제가 前者에 속해 중요시된 것을 곧 수긍할 수 있다. 심지어는 朱子가 실제로 자연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경우 그의 흥미가 자연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을 사용해서 어렵고 더 복잡한 社會・倫理・哲學의 문제를 논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現象世界的의 實在을 강력히 옹호하는 新儒學의 입장이다. 본래부터 儒學의 특징이었던 이 입장이 현상세계를 부정하는 佛敎・道敎에 대한 反作用으로 신유학에서는 더욱 강력해졌던 것이다. 한편 이같은 실제 현상세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空’, ‘無’, ‘無限’, ‘空間’ 등의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힘들게 했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허하고 현상세계의 實在의 인식이나 그 속에서의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에 아무 도움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런 공허해 보이는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고찰이 자연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바로 이같은 개념들에 대한 중세 서양에서의 계속된 논의가 과학혁명기를 통해 새로운 근대과학을 형성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신유학자들의 경우에는 결국 현상세계의 實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그 현상세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日帝에 의한 韓半島 開發 戰略批判

國土開發研究院 金 儀 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日本의 이른바 東洋三國은 19세기 후반까지도 西歐世界와는 높은 담을 쌓는 鎖國政策을 펴고 있었다. 西歐列強이 최초로 東洋에 밀어 닦친 것은 1840년의 英國에 의한 阿片戰爭이라 할 수 있다. 1842년에 北京은 英國軍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다. 日本은 이 阿片

戰爭을 계기로 하여 西洋에 관해 研究하기 시작했고 1824년에 德川幕府가 반포했던 이른바 『異樣船打拂令』을 철회하는 機敏性을 발휘하였다.

日本은 1853년에 Perry提督이 開港을 要求하자 다음해인 1854년에 재빨리 開港하였으며 15년 후인 1868년에는 明治維新을 이룩하고 1876년에는 Perry제독이 日本에 취한 것과 같은 수법으로 우리나라에 開港을 要求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지척에서 일어난 阿片戰爭도 아무런 관심없이 江 건너 불보듯 했는가 하면 일본의 開港要求를 아무런 代案도 없이 「衛正斥邪」로 一貫하는 물지자의愚를 범하고 말았다.

아편전쟁을 겪은 中國이 近代化의 계기를 잡은 것은 이른바 「同治中興」을 이룩한 1864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近代化 기점을 1884년 「甲申政變」으로 잡는다면 中國의 同治中興보다 22년 뒤졌고 日本의 明治維新보다는 18년 뒤의 일이다. 19세기 후반의 이 18년의 갭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日本間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탐욕은 명치유신 직후의 소위 西郷隆盛에 의한 『征韓論』이 있고 1893년의 樺井藤吉에 의한 『大東合邦論』에 잘 나타나 있다. 日本은 1894년에는 海軍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근해에 대한 測量을 마쳤다. 乙巳保護條約 1년전인 1904년에는 『對韓施設綱領』을 만들어 본격적인 한반도 支配體制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綱領의 내용은 첫째 韓國의 모든 交通施設을 장악할 것, 둘째 韓國의 모든 通信施設을 장악할 것, 셋째 軍隊가 주둔해야 할 戰略用地에 대한 收用權을 확보할 것 등이었다. 이어 1905년에는 乙巳條約 체결직전에 「朝鮮水產調査」란 이름으로 島嶼와 海岸調査를 실시하여 그들이 확보할 據處物色을 끝낸 다음 보호조약을 맺었다.

日本은 이 不平等 보호조약이 5년간 계속되는 동안 실질적인 統治機構를 정비하고 外交權은 물론 財政權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910년에 悲運의 韓日合併이 이루어지자 日本은 세가지 對韓統治方針을 수립했다. 첫째는 한국을 영원한 農業國家로 統治할 것, 둘째는 한국을 日本의 商品販賣市場으로 통치할 것, 셋째

大陸침략을 위한 兵站基地로 통치할 것 등이다.

그들이 세운 大陸침략 루트를 보면 제 1루트는 이른바 黃海~渤海루트로서 당시 日本에서 가장 큰 工業都市였던 大阪을 기점으로 하여 瀨戶內海~下關~우리나라南海岸~西海岸~遼東半島~山東半島의 靑島에 이르는 루트이고, 제 2루트는 중앙루트 또는 安奉루트로서 東京~下關~釜山~서울~新義州~奉天~하얼빈線이며, 제 3루트는 北鮮루트로 日本의 背面地域인 舞鶴과 新潟에서 출발하여 東海를 횡단하여 羅津을 거쳐 圖們~하얼빈線이다. 이 대륙침략루트는 滿洲에 주둔하고 있는 70~100萬名の 關東軍을 전제로 한 軍需物資와 日本으로 반입할 여러가지 資源輸送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철도·도로·항만 및 都市 등의 배치와 施設의 기본을 이 3대루트에 두었고 실제 36년간의 統治期間에 우리나라의 公共施設을 이 루트를 따라 형성시켰다.

日帝의 韓半島統治는 대체로 4단계로 구분되는데 제 1단계(1910~1920)開發準備단계, 제 2단계(1921~1931)單位國家 經濟體制 解體期, 제 3단계(1932~1937)南農北工政策, 제 4단계(1938~1945)工業化 및 統制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開發準備段階에서는 우선 日本資本의 植民地로의 유입방지와 식민지의 民族資本形成을 억제하기 위하여 1910년에 『朝鮮會社令』을 制定하고 土地收用權을 확보해 둔 다음 1918년까지 9년간에 걸쳐 그 惡名높은 「朝鮮土地調查事業」을 실시하였고 이때에 5만분의 1 地形圖製作을 완료했으며, 1915~1928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14개 河川에 대한 이른바 「朝鮮河川調査」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日本은 또한 1911~19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第1次 水力調査」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韓半島開發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친 日帝는 1920년에 『朝鮮會社令』을 철폐함으로써 日本資本의 植民地流入의 길을 뚫었다. 會社令이 철폐되자 우리나라에 流入된 日本資本의 大宗은 企業의 産業資本과 土地投機資本 및 高利貸金資本들이었다.

제 2 단계는 한반도를 單位國家로서의 經濟構造와 經濟體制를 해체시키고 日本經濟의 한 部

分으로서 개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와 하천, 港灣 등 일련의 開發事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5년부터의 일이었다. 이것은 搾取를 위한 國土空間에 대한 再編成作業이었다.

河川의 治水事業은 대도시의 防水對策과 대근로 平野에 대한 保護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港灣開發은 우리나라의 米穀과 地下資源의 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道路事業은 産業開發이나 地域住民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治安確保와 軍事的 目的달성 위주였다. 그것은 1916년 현재 自動車의 등록臺數는 89대에 불과했는데 道路延長은 2천 6백 90km에 달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

1923~1929년까지 日帝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제 2차 水力調査」를 실시했다. 이 調査結果 鴨綠江水系의 허천강과 장진강 및 부전강에 댐을 축조하여 이를 流域變更方式으로 물을 東海로 流下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등 全國에 150개의 水力地點에서 2백 93만 6천 6백 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日帝는 당초의 統治方針가운데 한반도를 영원한 農業國家로 통치하자는 部分을 일부 수정하여 南農北工政策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 정책에 의해 日本은 北韓一帶에 대규모 水力開發을 추진하는 한편 興南~咸興地域·淸津地域·平壤~鎭南浦地域 및 新義州~多獅島地域 등에 대대적인 軍需工業團地를 건설했다.

제 4 단계인 1938~1945년까지는 본격적인 軍需工業團地開發에 박차를 가했으나 太平洋戰爭의 발발로 1942년부터는 완전히 統治經濟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鐵筋供給이 어렵게 되자 대나무로 이를 代用함으로써 이른바 竹筋콘크리트란 말을 남기까지 했다.

日帝는 韓半島에 36년간 총 70~80億圓 정도를 投資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및 都市施設등 공공사업 투자에는 27億圓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日帝는 大陸침략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에 20億圓(國鐵 18億圓, 私鐵 2億圓)을

투입하였고 韓日合併이전에 이미 釜山~서울~新義州를 연결하는 鐵道路線을 완성했고 이어 湖南線과 京元線 및 咸境線등을 완공함으로써 植民統治의 초기 단계에서 南北縱斷型 國土構造의 基礎를 확립했다.

이상에서 대강 더듬어 본 바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韓半島開發이 우리에게 남긴 결과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大陸政策의 架橋로서의 한반도 개발은 南北縱斷 X字型 국토구조의 형성과 南農北工政策에 의한 국토구조의 偏倚現象이었다.

日帝下の 韓半島 開發이 남긴 이 두 遺産은 1945년 解放(獨立)과 더불어 國土가 分斷되자 單位國家의 經營에 커다란 陰路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제 1차 및 제 2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72~1991년)을 통해서 東西間을 연결하는 교통망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日本이 韓半島 統治에 그들의 目的달성을 위해 저지르고 간 國土構造의 不合理性을 이제 우리들 자신이 시정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좋은 例라 할 수 있겠다.

朝鮮 前期의 醫學教育

청주대 孫 弘 烈

I. 序

우리 나라에 있어서 醫學教育은 이미 三國時代부터 시작되었다. 百濟에는 醫博士와 採藥師 등이 있어서 이들을 日本에 파견하였고, 統一新羅에서도 醫學을 설치하여 博士로 하여금 醫生을 가르쳤다 한 것으로 보아 醫學教育이 매우 일찍부터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에는 太祖代부터 開京과 西京에서 醫學教育을 실시하였고, 成宗 6년(987)부터는 12牧에 醫學과 經學博士 각 1명씩을 파견하여 地方子弟를 교육함으로써 의학교육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朝鮮前期의 의학교육은 醫生뿐 아니라 現職 醫官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醫書習讀官을 설치하여 士大夫로 하여금 醫書를 습득케 하는 등 醫學을 장려하였다. 특히 鍼灸醫를 비롯한 專門醫를 양성하기 위하여 分科教育을 실시하였고, 醫女制度를 창설하여 婦人들의 질병 치료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麗末 이래 계속되어 온 鄉藥의 開發·研究와 이에 대한 교육으로 醫學의 自主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 醫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II. 醫學의 設置와 醫生教育

鮮初에 醫學이 설치된 것은 太祖 2년(1393) 10월이었지만, 醫學教育은 太祖 元年 7월에 설치된 典醫監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太宗 6년(1406) 11월에는 十學에 提調官을 두었고, 同 12年 10월에는 提調를 加設하였다. 世宗即位年(1418)에는 九學(儒學 제외)에 提學과 別坐 각 1명(3品 이하 6品 이상)을 가설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世宗 16년 7월에는 典醫監에 兼正·兼副正·兼判官·兼主簿 각 1명을 儒醫로 임명하였고 惠民局과 濟生院에는 提學·別坐 중 1명과 兼丞 1명을 儒醫로 임명하였다.

국가의 醫學教育政策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醫學이 인간의 생명과 제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良家の 子弟에게 이를 권장하고, 총민한 자를 따로 선발하여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醫官과 文臣(儒醫) 중에서 유능한 자를 골라 敎官을 삼아 교육에 힘썼던 것이다. 특히 世宗은 醫學教育에 힘써 敎官을 증원하고, 醫書習讀官을 신설하는 등 유능한 醫員養成에 노력하였으며, 世祖는 친히 「醫藥論」을 저술하여 의학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특히 經筵에서 자주 醫學을 講하게 함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醫業을 천시하던 당시의 풍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이를 기피하여 의학보급에 문제점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III. 醫書習讀官의 설치와 교육

醫書習讀法은 世宗 때 설치된 것으로 유능한